

史上名人의 二十歲；

茶山先生의 早年工詩[上]

崔益翰

茶山丁若鏞先生은 朝鮮의 文化史가 크게 자랑할만한 偉대한 百科辭典學者(encyclopaedist)의 한사람이다. 이제 筆者가 이러케 名稱함은 단순히 先生의 □博한 學□이 百科를 網羅했단것을 意味할뿐아니라, 그의 思想的 潮流는 歐洲十七八世紀啓蒙期の 百科辭典學者一派에 近似하단것을 意味한 것이다. 그들은 哲學에 있어선 神의 超自然的 絶對性を 人文의 見地에서 制限 或은 否認한 同時에 人間의 經驗과 理性을 極도로 主張하였으며 社會的 關心에 있어선 封建政體의 專制的 重壓을 批判하고 自由와 平等과 人□을 內包한 合理的 制度의 □□을 □□하였다. 그들의 眼光에는 宇宙의 모든 事物이 盲目的 信仰의 對象이 되기에 適合한 一個□□의 全體로 나타치 안코 各其一定한 法則에 依하여 □成하고 또는 存在할 수 잇는 集合의□□로서 보이였다. 그리하여 自然과 歷史의 百科的 部門이 모다 神의 奇蹟, 啓示의 性格에 依하여 理解될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人間 知識의 最高尺度인 理性的 判斷에 依하여 分析되고 整理되고 綜合될 수 잇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歐洲百科辭書學派의 運動은 人間文化의 再檢討와 再編成을 意味한 것이다. 이는 卽 現代科學의 先驅的 工事였다.

茶山先生의 出生은 英祖三十八年 西曆으론 一七六二年인즉 佛蘭西의 百科辭書編輯(1751-65)이 開始된 後, 十年만이니 經驗과 理性을□□로 하여 神秘的世界에 突入하여 分析의 메쓰를 文化體에 더하든 歐洲思想의 潮流가 西洋敎士의 非本意的 媒介로 因하여 支那를 거쳐 朝鮮에까지 波及된것은 多少 明確치 못한 가운데서 또한 追跡할 수 잇는 歷史的 經路이다. 그러나 한 거럼 올라가 根本的으로 말하면 當時 茶山一派의 歷史的, 社會的 存在가 歐洲 그들의 環境과 階段에 比하여 近似値를 갖엇던 것이므로 그들의 意識的 文化的 活動은 東西의 地理的 相□을 不拘하고 必然的으로 類似的 方向으로 進行케되엇던 것이다. 勿論 內容과 程度의 多少差異는 없지 안 헛지만.

茶山은 그의 博學이 文學, 道學, 經義, 史類, 百家로부터 政治, 經濟, 法律, 言語, □□天文, 地理어느 것에 걸치지 안흔 배 없었다. 哲學上 □奧로말하면 茶山은 우으로 李星湖, 申旅庵諸賢을 凌駕하고 知識上廣泛으로 말하면 알로 五洲衍文著者李圭景과 明南樓全集著者崔漢綺 等에 뒤지지 안혔다.

이제 本□를 돌아보아 早年工詩로서 先生의 二十歲를 敍述하려하니 先生의 一生과 全體에 對하여 너무나 不調和의 感이 없지안타. 그러나 先生의 二十歲시는 年□에 이른바『在京, 習科時』以外는 特記할만한 事行이 없고 다만 佳詩十餘篇이 手定□□中에 □入되어 잇는 것을 볼 수 있다. 先生은 詩人이 아니되 詩人을 내려다볼만한 佳詩를 二十歲의 少時에 벌써 지었으니 그의 天才과 □□을 또한 엿볼 수 잇지 안는다.

그러나 天才的 大學者는 早年에 흐니들 詩人의 風格을 나타내었나니 例하면 國富論著者나 凱謁錄著者가 모다 初年엔 詩人이 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卓越한 才氣와 銳敏한 觀察과 感□的 情緒가 自然과 社會를 부두 칠 때에 詩的 性格을 容易히 發揮할 수 잇는 까닭이다.